

1번

제시문 (가) 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가)에 따르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노예제도에 대한 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사람들의 지위를 사회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운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의 문제를 운명으로 받게 된 자신의 지위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로써 볼 때 개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지의 여부로써 얻게 되는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는 무관하다.

반면에 제시문 (나) 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관련있다고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나)에 따르면, 남편은 항상 자신이 편리한 대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아내에게는 온갖 집안일을 맡기고, 부러먹고 신의, 인륜, 예의, 염치를 강요한다. 이로 인해 아내는 항상 수동적으로 살며 불행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나)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제시문 (다)에서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관련있다고 보는 점은 제시문 (나)와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비례 관계로 본다. (다)에 따르면, 공리는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의 행복의 합을 증가시켜주는 속성이다. 공리의 원리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의 합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동체에 속한 한 개인의 행복이 증가하면 공동체의 행복 즉 구성원들의 행복의 합도 증가하게 된다. 이는 공동체에 속한 타인의 행복도 증가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행복 증가가 타인의 행복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비례 관계이다.

2번

제시문 (라)의 국가군 B는 국가군 C에 비해 국민들의 행복도의 평균이 높은 반면 그 행복도의 편차가 커서 행복도의 양극화가 일어난다. 이와 반대로 C는 B에 비해 행복도의 평균이 낮고, 이 수치는 '보통이다'인 2점보다도 낮다. 대신 C의 행복도의 편차는 낮아서 상대적으로 행복도의 평등화가 일어난다.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는, (라)의 B, C 국가군 중 B가 이상적인 국가이다. (다)에서는 공리주의를 주장하며 개인들의 행복의 합인 공동체의 행복이 최대화되어야 옳다고 말한다. 여기서 공동체 즉 국가의 행복이 최대화 되었을 때, 그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라고 여길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라)의 B국가군은 C국가군보다 행복도의 평균이 높다. 행복도의 평균이 높다는데서 B국가군의 행복 즉 B국가 구성원들의 행복의 합도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로써 볼때 (다)의 공리주의를 따랐을 때, B국가군이 C국가군 보다 이상적인 국가이다.

물론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B국가군은 행복도의 편차가 크므로 즉 행복도의 양극화가 일어나므로 (나)의 아내와 같이 불행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이 또한 해결될 수 있다. (다)의 공리주의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공동체의 행복의 최대화이지,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여부가 아니다. 물론 구성원의 행복이 감소하여 불행이 되면 공동체의 행복도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구성원들의 행복 증가량이 불행한 개인의 행복 감소량보다 더 크다면 공동체의 행복은 증가할 것이다. 바로 이런 국가군이 B인 것이다. 그러므로(다)의 입장에서 B국가군이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